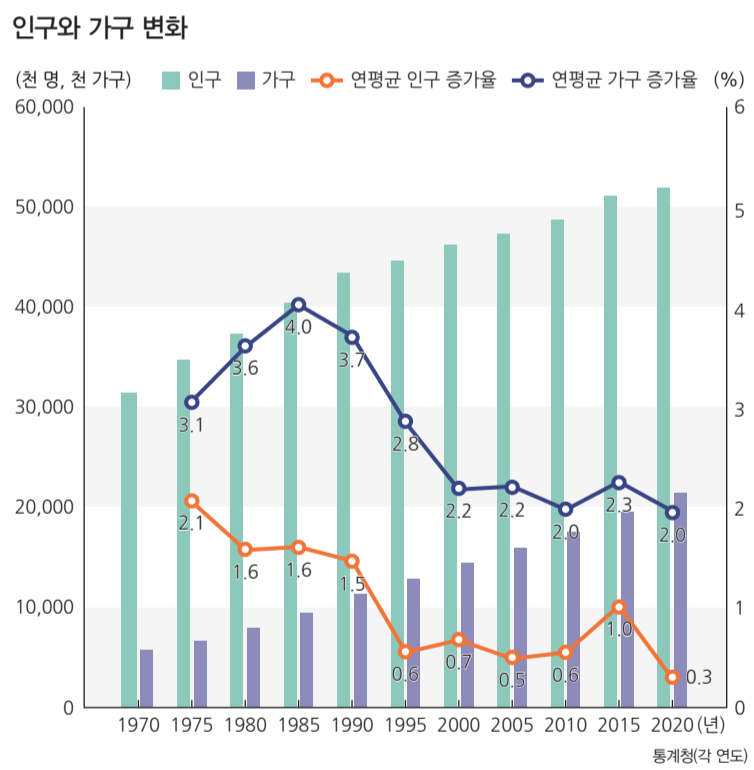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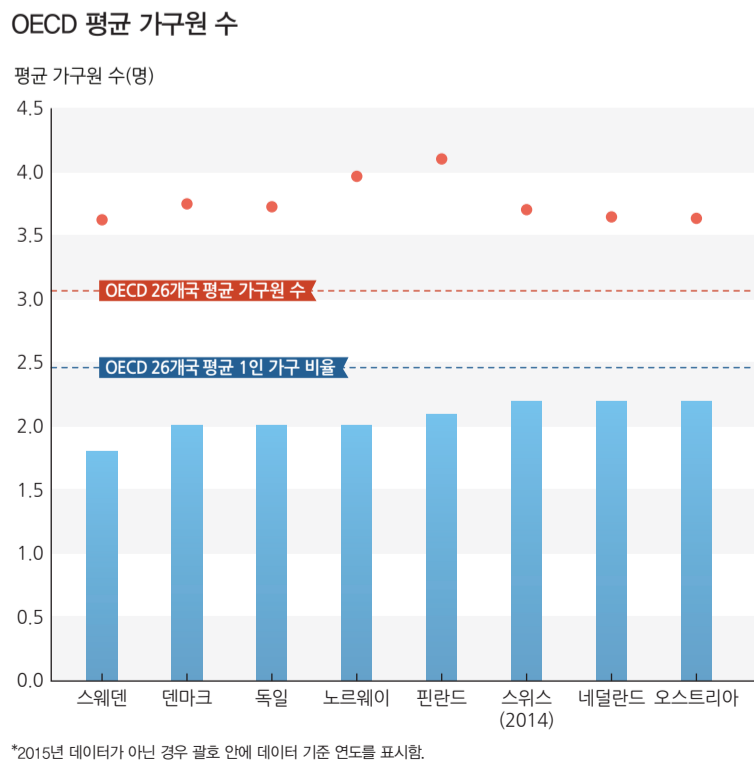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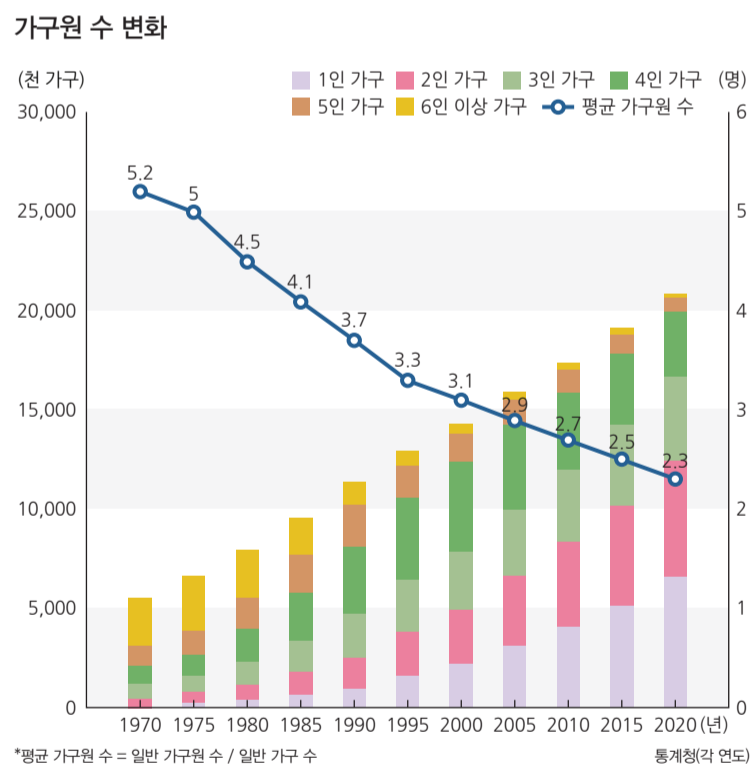


가구와 가구원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 단위로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도 증가하지만, 가구 증가는 인구 증가보다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150만 가구가 있으며, 가구 중에서는 외국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가구 동향에 대한 조사는 통상 일반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변화와 가구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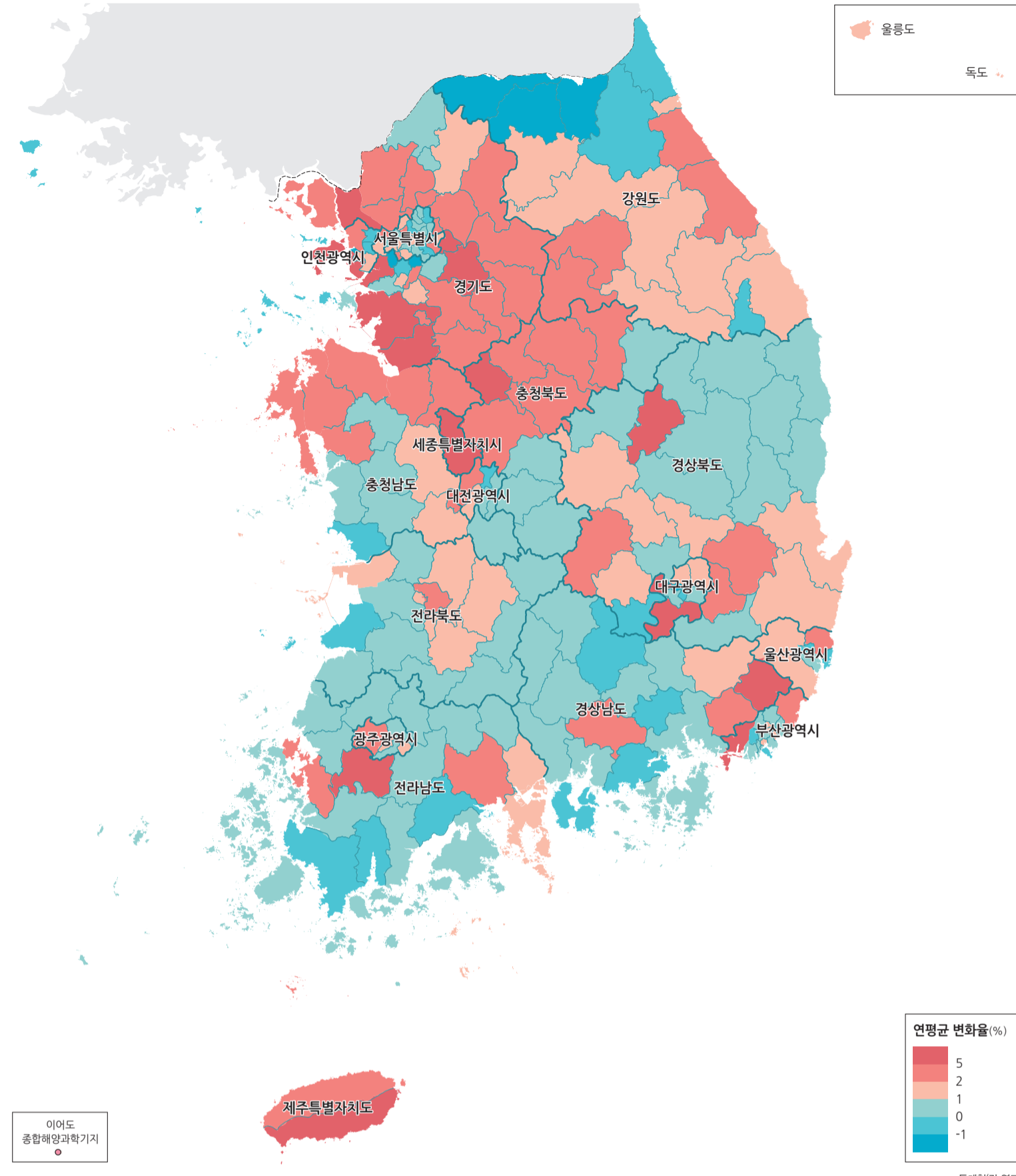
는 6인 이상 가구가 전체 일반 가구의 44%에 달해 가장 많았으나, 2020년 현재는 1인 가구가 전체 일반 가구 2,090만 가구 중 32%인 660만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인 가구 역시 28%(590만 가구)에 달한다. 가구원이 2명 이하인 가구는 일반 가구의 60%에 달하는 1,250만 가구이다. 1970년 5.2명이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역시 2020년에는 2.3명 수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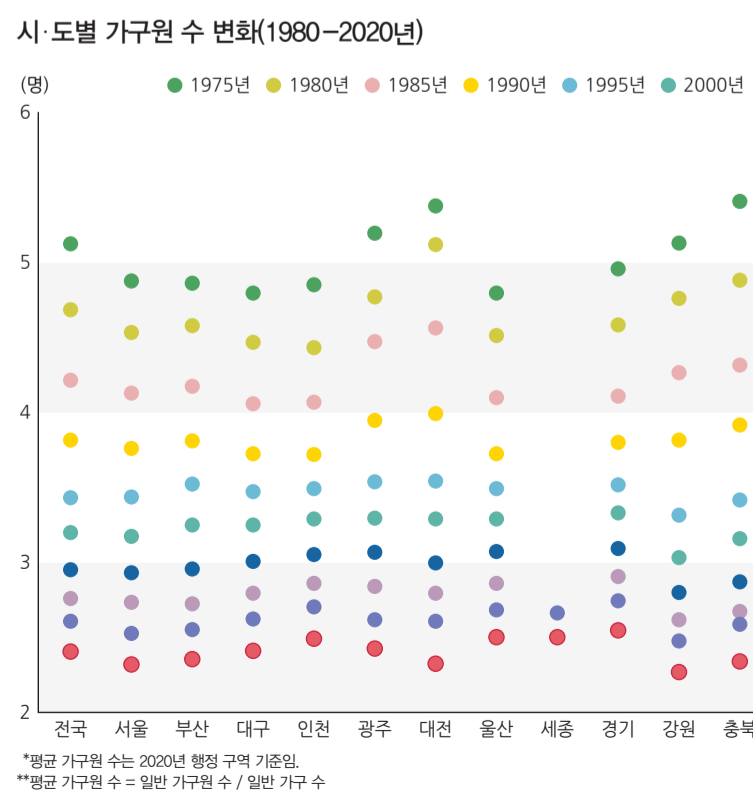
*2015년 데이터가 아닌 경우 괄호 안에 데이터 기준 연도를 표시함.

가구의 변화

가구 수 변화율(2015-2020년)



가구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2020년 연 평균 가구 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군 지역, 접경 지역, 구도심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하남시(20.2%), 화성시(11.8%), 김포시(9.0%), 시흥시(6.9%), 세종시(16.9%), 부산 강서구(10.9%), 대구 달성군(9.9%), 충북 진천군(7.4%)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구 수 증가율이 매우 높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행정 구역 기준임. **평균 가구원 수 = 일반 가구원 수 / 일반 가구 수

시·도별 인구 증감과 가구 증감(1980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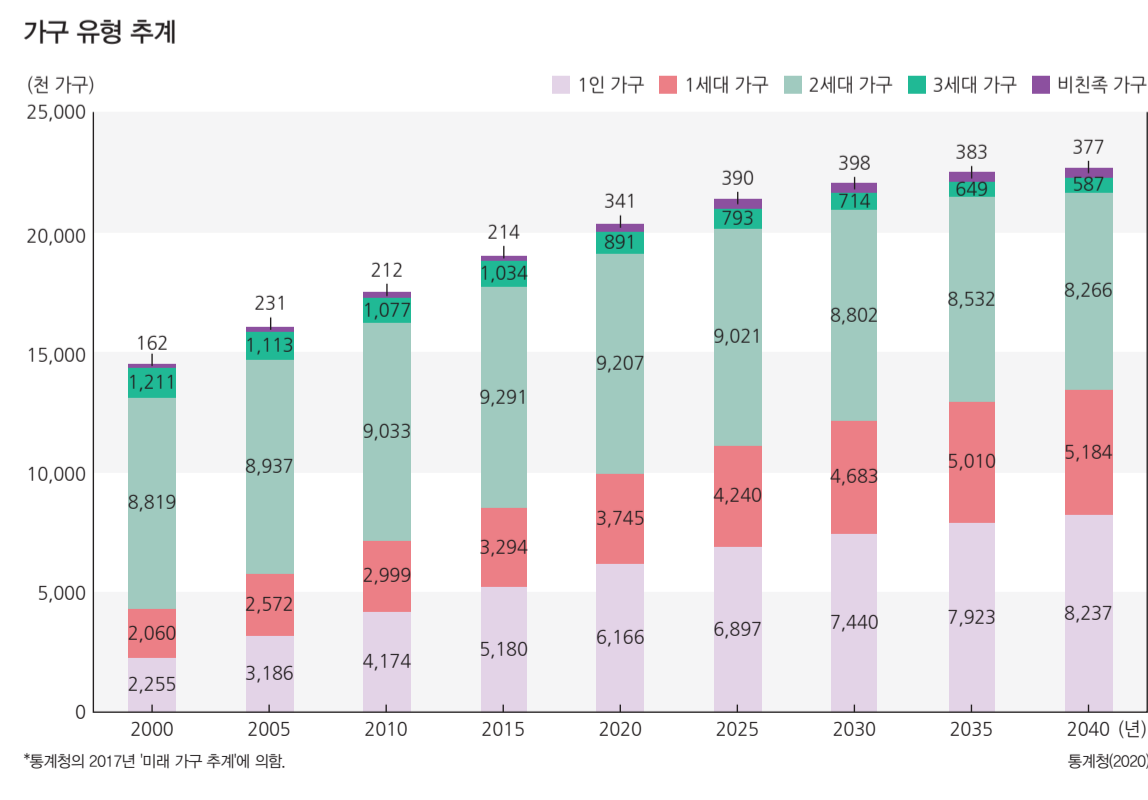
시·도	인구				증감
	1980년 인구	1980년 구성비	2020년 인구	2020년 구성비	
전국	37,436	100.0	51,829	100.0	14,393
서울특별시	8,364	22.3	9,586	18.5	1,222
부산광역시	3,248	8.7	3,349	6.5	101
대구광역시	1,852	4.9	2,411	4.7	558
인천광역시	1,230	3.3	2,945	5.7	1,715
광주광역시	857	2.3	1,478	2.9	621
대전광역시	804	2.1	1,488	2.9	684
울산광역시	544	1.5	1,135	2.2	591
세종특별자치시	97	0.3	354	0.7	257
경기도	3,704	9.9	13,512	26.1	9,808
강원도	1,791	4.8	1,522	2.9	-269
충청북도	1,424	3.8	1,632	3.1	208
충청남도	2,055	5.5	2,177	4.2	122
전라북도	2,288	6.1	1,803	3.5	-485
전라남도	2,923	7.8	1,789	3.5	-1,134
경상북도	3,102	8.3	2,645	5.1	-457
경상남도	2,689	7.2	3,333	6.4	644
제주특별자치도	463	1.2	671	1.3	208

시·도	가구				증감
	1980년 가구	1980년 구성비	2020년 가구	2020년 구성비	
전국	7,979	100.0	21,485	100.0	13,506
서울특별시	1,842	23.1	4,127	19.2	2,284
부산광역시	708	8.9	1,420	6.6	712
대구광역시	414	5.2	997	4.6	584
인천광역시	277	3.5	1,179	5.5	902
광주광역시	179	2.2	608	2.8	429
대전광역시	157	2.0	639	3.0	482
울산광역시	120	1.5	453	2.1	333
세종특별자치시	20	0.3	141	0.7	121
경기도	807	10.1	5,295	24.6	4,488
강원도	375	4.7	668	3.1	293
충청북도	291	3.6	696	3.2	405
충청남도	406	5.1	922	4.3	516
전라북도	452	5.7	768	3.6	316
전라남도	586	7.3	773	3.6	186
경상북도	667	8.4	1,152	5.4	485
경상남도	572	7.2	1,376	6.4	805
제주특별자치도	105	1.3	270	1.3	165

*1980년 인구는 2020년 행정 구역 기준 인구와 가구임. **1980년 세종의 인구는 세종 연가구의 인구가 아니며, 1980년 충남의 인구는 연기군의 인구를 제외한 것임.

감소한 지역에서도 가구는 모두 증가했다. 1975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별 평균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이를 보다 잘 알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의 평균 가구원 수 감소 폭이 크다. 제주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폭이 1.99로 전국에서 가장 작았다. 1975년에는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낮은 지역(평균 가구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도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등 지역으로 변화했다. 즉, 과거에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가구원 수가 적었으나, 현재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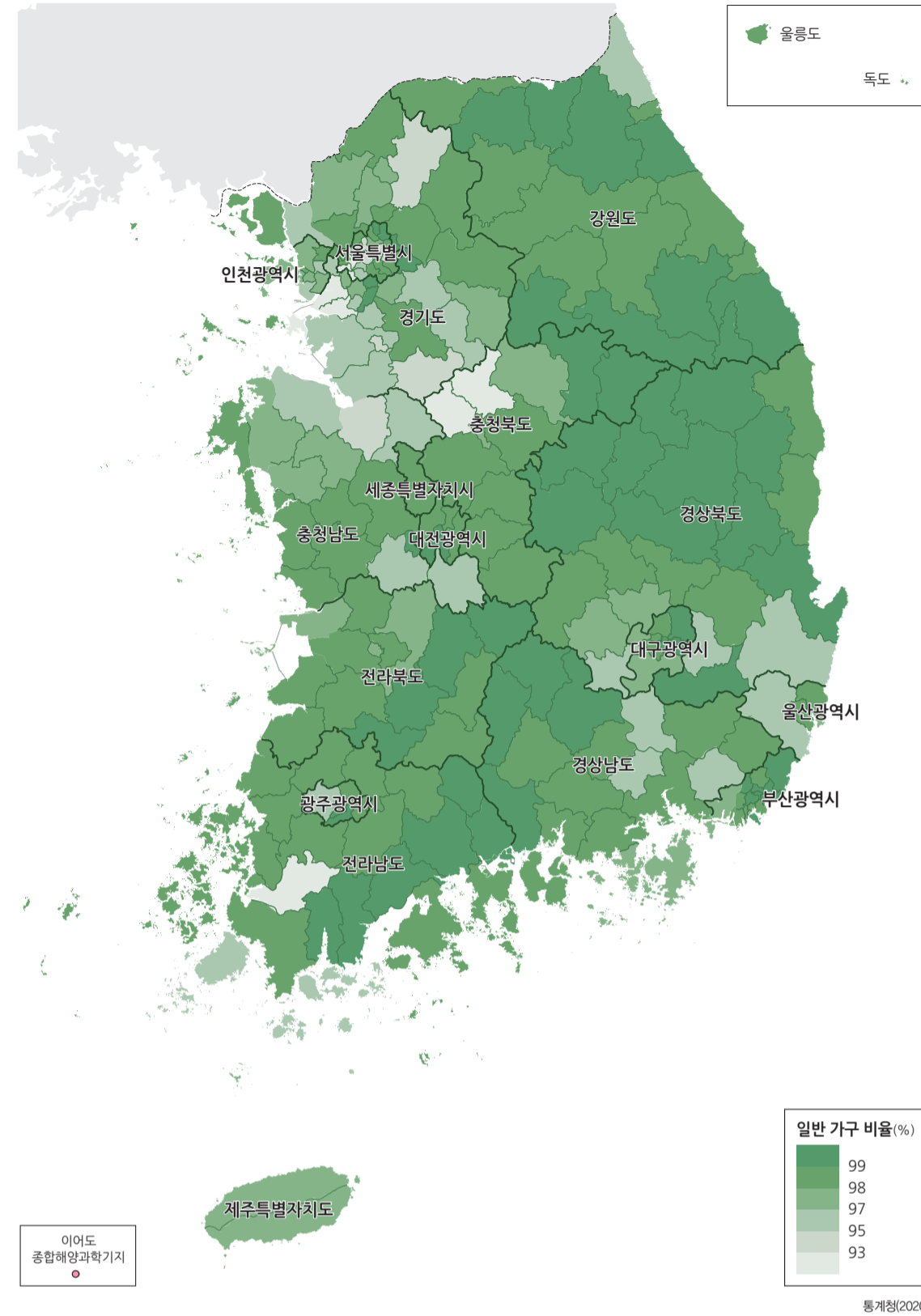
에 비해 가구원 수가 더 크게 변화했다. 가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는 2040년 2,265만 가구에 이르며 최대 가구를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00년 15.5%이던 1인 가구 비율은 2040년 3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60.8%로 주류를 이루던 2세대 가구의 비율은 2040년 36.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3세대 이상 가구 역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가 1,340만 가구로 전체의 59.3%에 달해 가구 내 세대 간 교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2017년 미래 가구 추계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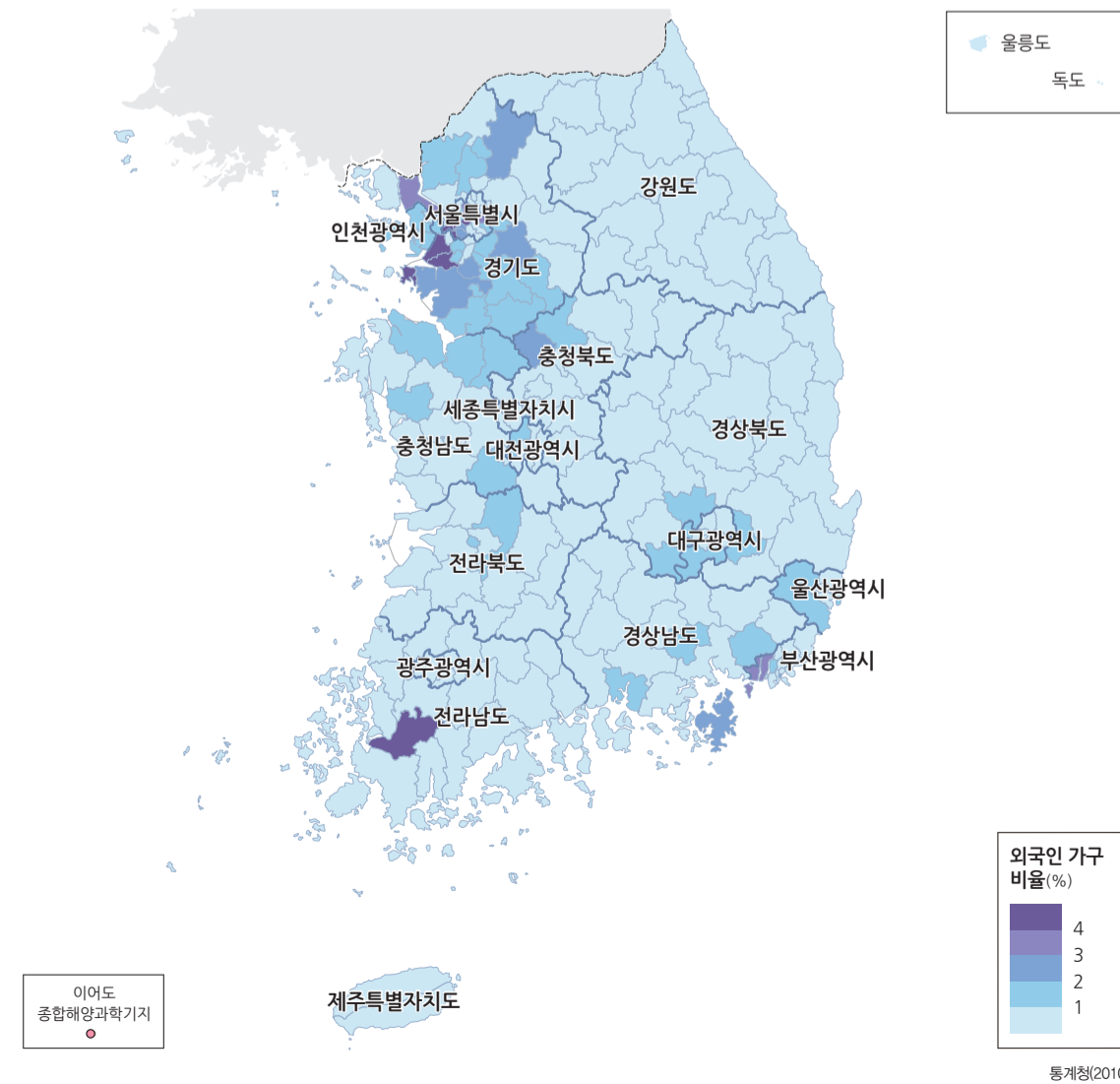
가구 구성과 외국인 가구

일반 가구 비율(2020년)



가구 중 대부분은 일반 가구이며,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이 같이 거주에서 생활하는 집단 가구는 가족사, 보육원, 양로원 등이 이에 속하고,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총 가구 중 일반 가구의 비율은 2010년 98.7%에서 2020년 97.4%로 감소했는데 이는 외국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다. 2020년 시·군·구별 일반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안산시(89.5%), 시흥시(89.7%), 서울 구로구(89.8%)가 90% 미만인 지역이며, 그 밖에 외국인이 많은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의 공업 지역이 일반 가구 비율이 낮다. 집단 가구는 1.6만 가구 규모로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충남 금산군, 충북 음성군, 영동군, 전남 함평군 등의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외국인 가구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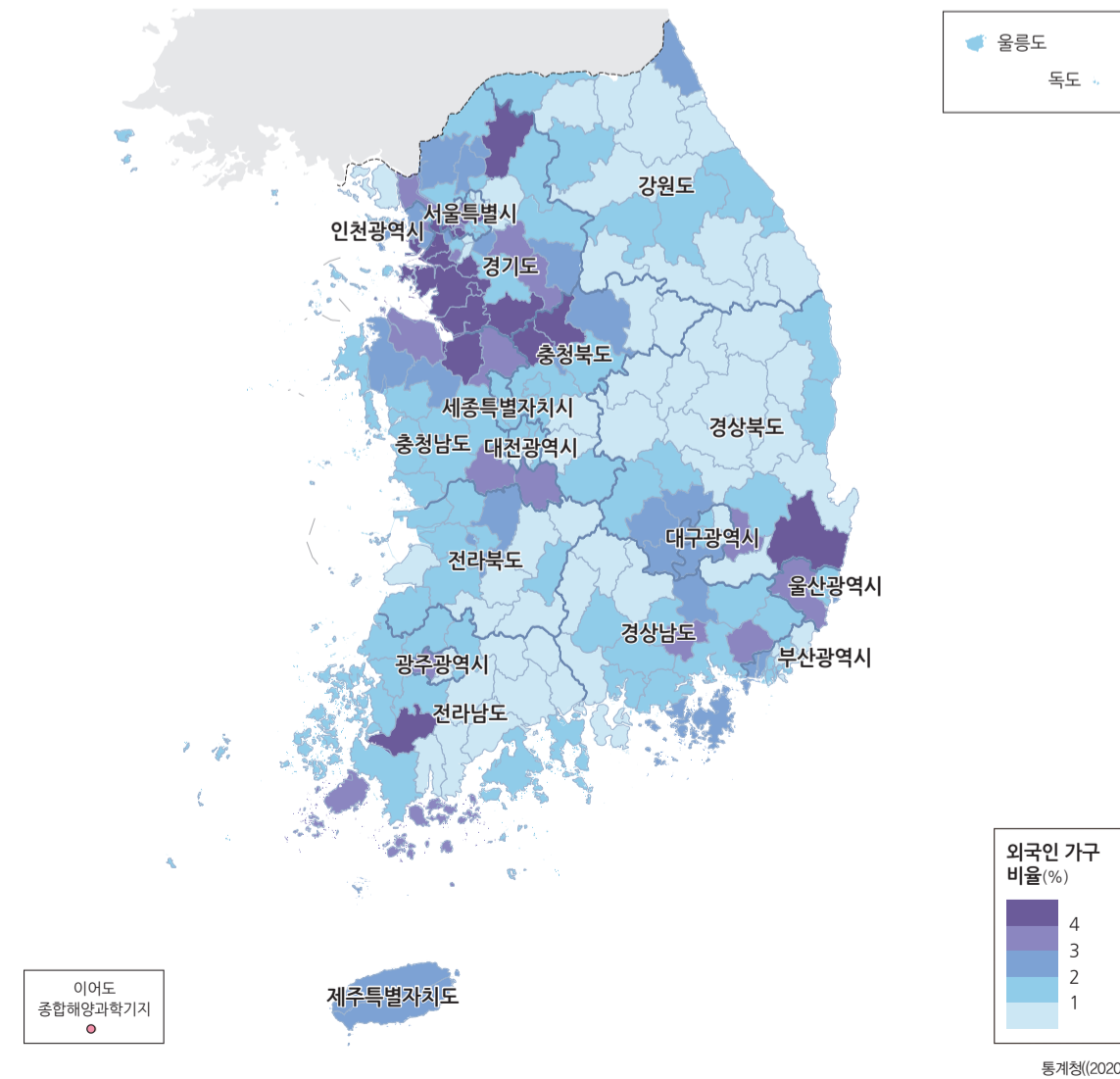
시·도별 가구의 구성(2010년, 2020년)

행정 구역	총 가구			일반 가구		
	2010년	2020년	2010-2020년 증가율	2010년	2020년	2010-2020년 증가율
전국	17,574,067	21,484,785	22.3	17,339,422	20,926,710	20.7
서울	3,577,497	4,126,524	15.3	3,504,272	3,982,290	13.6
부산	1,251,756	1,420,252	13.5	1,243,880	1,405,037	13.0
대구	873,934	997,416	14.1	868,327	985,816	13.5
인천	929,489	1,178,564	26.8	918,850	1,147,200	24.9
광주	518,742	608,316	17.3	515,855	599,217	16.2
대전	536,297	639,020	19.2	532,643	631,208	18.5
울산	377,938	452,995	19.9	373,633	444,087	18.9
세종	-	141,133	-	-	139,106	-
경기	3,908,059	5,294,836	35.5	3,831,134	5,098,431	33.1
강원	560,589	668,479	19.2	557,751	661,039	18.5
충북	564,614	695,948	23.3	558,796	678,922	21.5
충남	758,552	922,067	21.6	749,035	892,222	19.1
전북	663,695	767,803	15.7	659,946	755,575	14.5
전남	684,986	772,660	12.8	681,431	761,518	11.8
경북	1,014,345	1,152,097	13.6	1,005,349	1,131,819	12.6
경남	1,165,209	1,376,240	18.1	1,151,172	1,350,155	17.3
제주	188,365	270,435	43.6	187,323	263,068	40.4

행정 구역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		
	2010년	2020년	2010-2020년 증가율	2010년	2020년	2010-2020년 증가율
전국	20,727	16,464	-20.6	213,918	541,687	153.2
서울	2,836	2,261	-20.3	70,364	141,970	101.8
부산	785	686	-12.6	7,091	14,434	103.6
대구	553	574	3.8	5,054	11,088	119.4
인천	972	713	-26.6	9,667	30,602	216.6
광주	646	438	-32.2	2,241	8,704	288.4
대전	478	420	-12.1	3,176	7,352	131.5
울산	374	239	-36.1	3,931	8,673	120.6
세종	-	65	-	-	1,907	-
경기	5,307	3,879	-26.9	71,618	192,325	168.5
강원	658	788	19.8	2,180	6,845	214.0
충북	924	814	-11.9	4,894	16,180	230.6
충남	1,417	1,107	-21.9	8,100	28,629	253.4
전북	815	834	2.3	2,934	11,520	292.6
전남	843	933	10.7	2,712	10,246	277.8
경북	1,795	1,312	-26.9	7,201	19,096	165.2
경남	2,081	1,176	-43.5	11,956	24,959	108.8
제주	243	225	-7.4	799	7,157	7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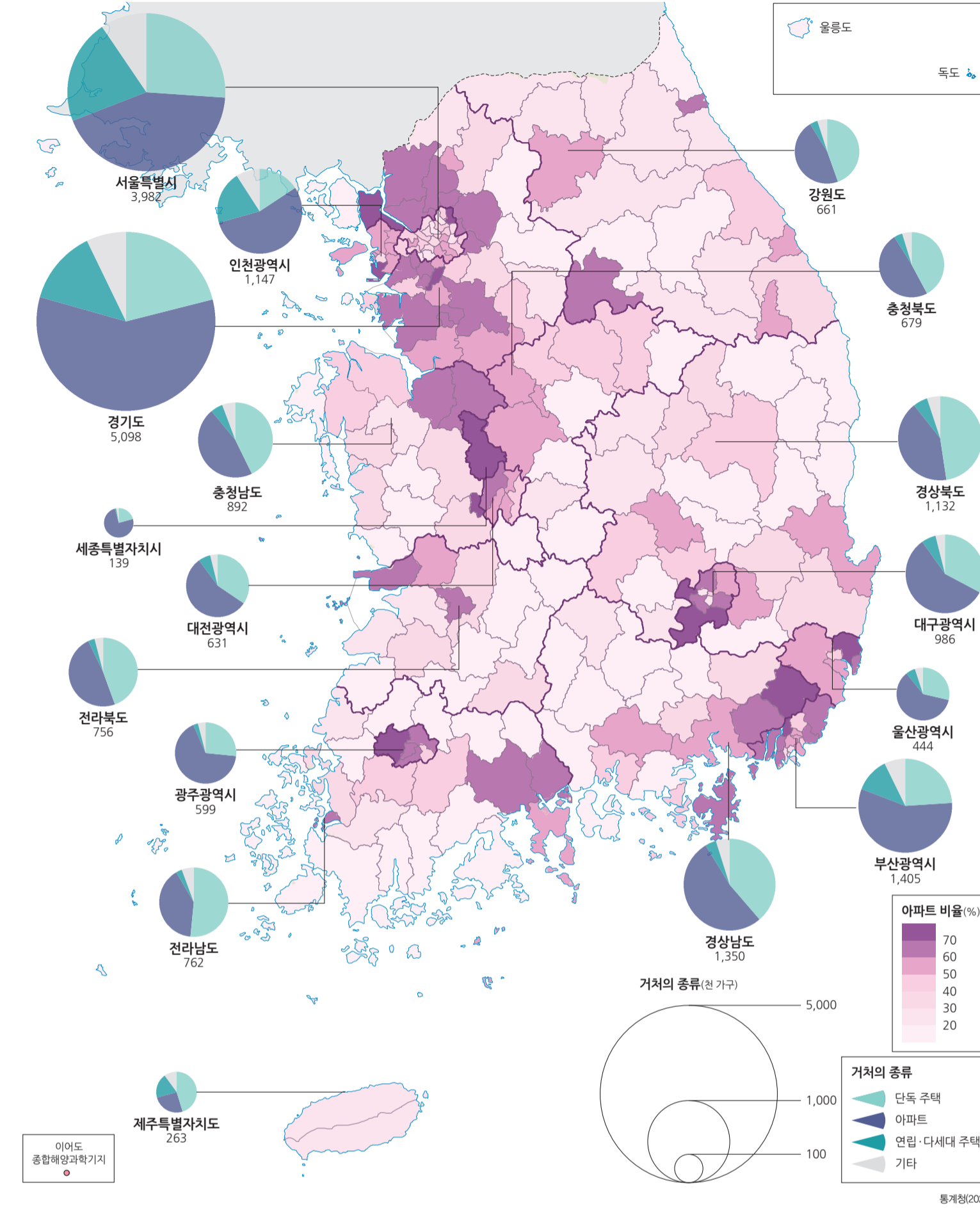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 가구는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재외 동포 유입 정책 등으로 크게 늘어난 외국인 가구는 2010년 21만 가구(1.22%) 규모에서 2020년 54만 가구(2.52%)로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0년 23개였던 외국인 가구 비율을 넘는 시·군·구는 2020년 75개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외국인 가구 비율이 4%를 넘는 시·군·구는 25개에 달한다.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 구로구는 외국인 가구 비율이 10%를 넘으며, 수도권 서남부, 충남과 충북 중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전남 영암군 등 공업 지역에서도 외국인 가구 비율이 높다. 또한, COVID-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순유출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총 가구 중 외국인 가구 비율이 2.54%에 달했다.

외국인 가구 비율(2020년)



거처의 종류

거처의 종류(2020년)



주거의 점유 형태(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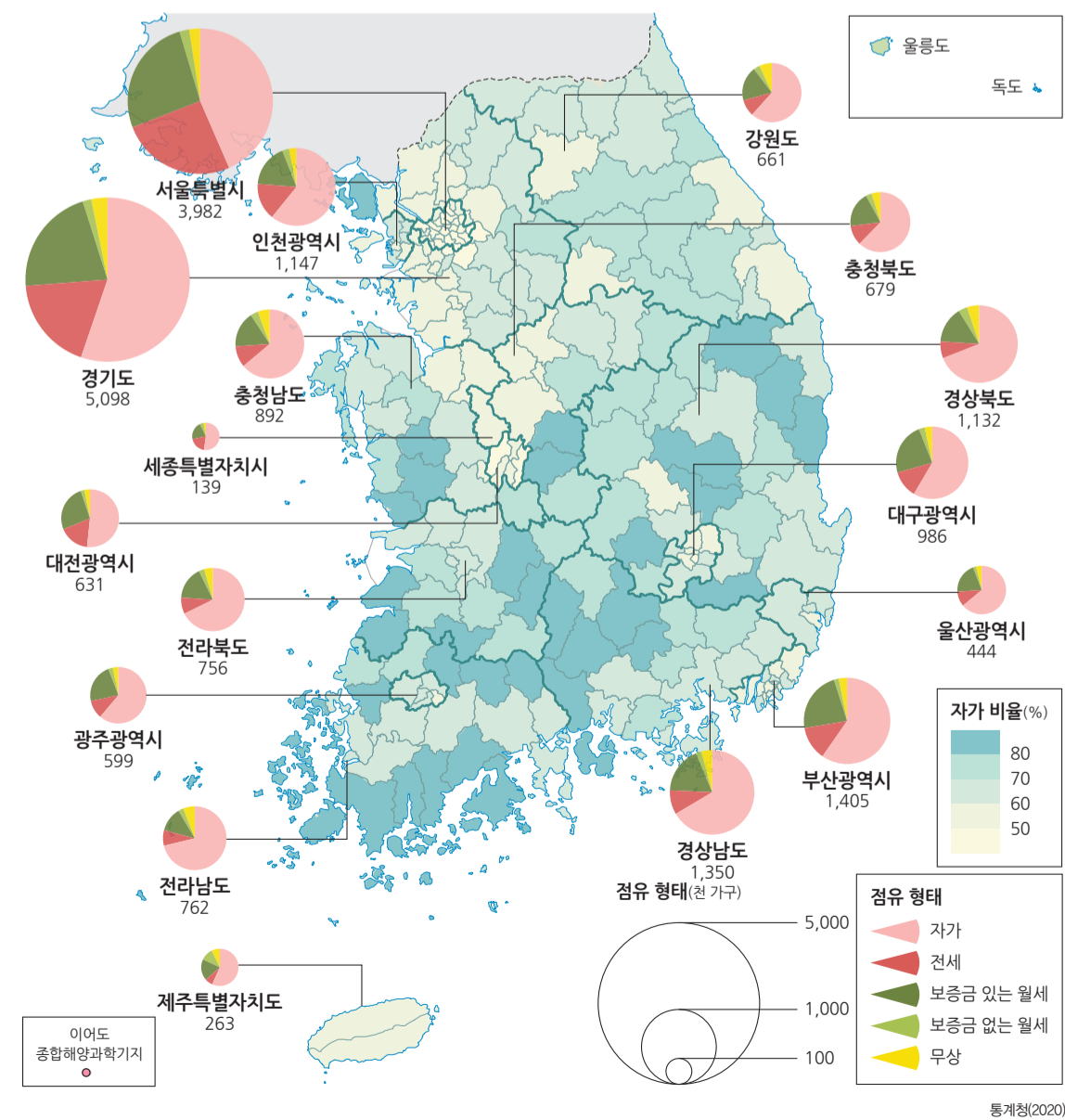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크게 단독 주택,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가나 공장 등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등으로 구분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 주택의 거주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반면 단독 주택의 거주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0년 현재 2,093만 일반 가구 중 52%인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 주택에는 635만 가구(30%)가 거주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오피스텔 등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유일하게 단독 주택 거주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반면, 세종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75%를 넘고 있다.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지 않으나, 연립과 다세대 등의 거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이 높아 아파트 대체 거주 공간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상위 5곳은 충남 계룡시(82%), 서울 노원구(78%), 울산 북구(78%), 인천 연수구(77%), 세종시(75%)였으며, 229개 시·군·구 중 87개 시·군·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0.1%), 인천 옹진군(3%), 경북 영양군(4%), 경북 울릉군(4%), 경북 군위군(5%) 등 전통적인 농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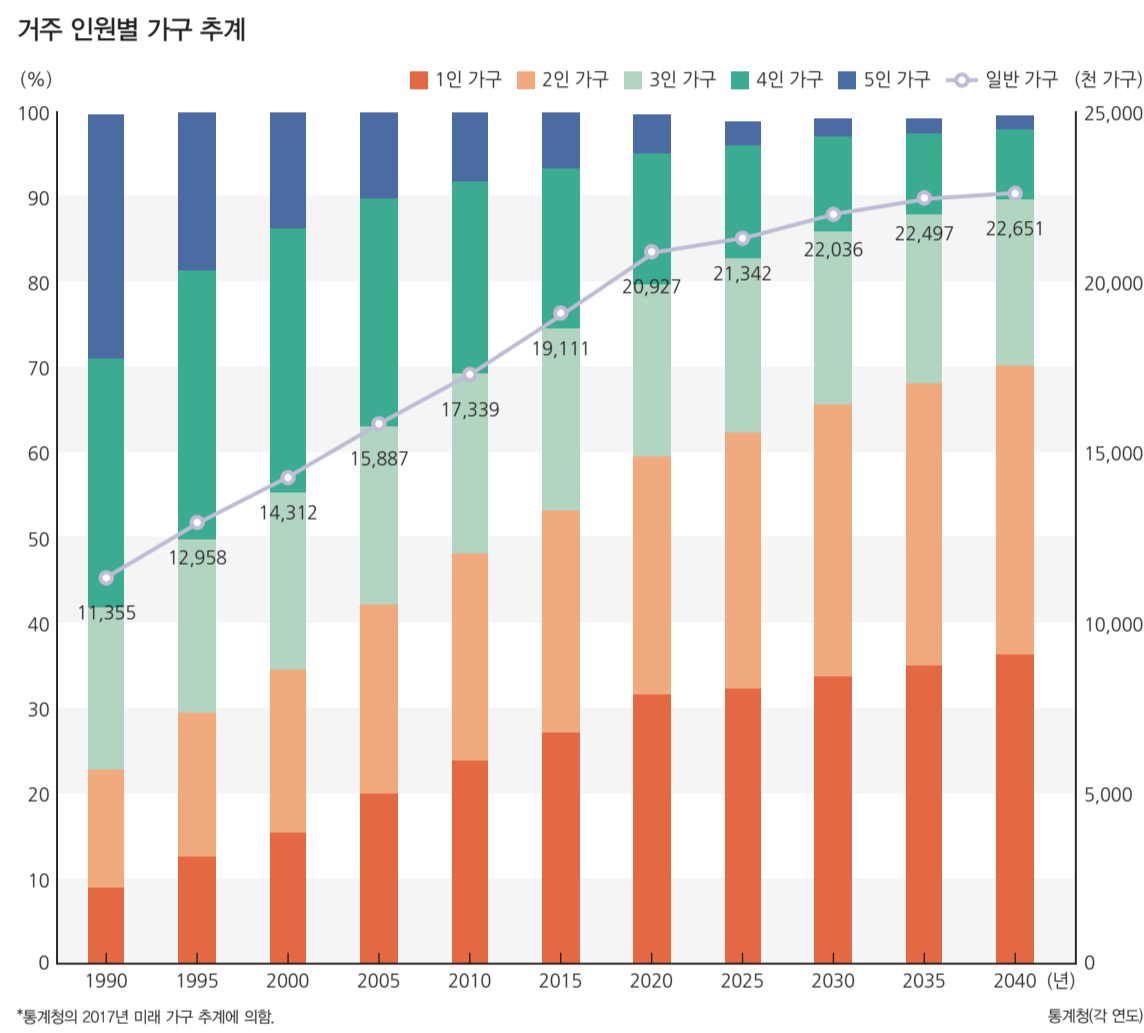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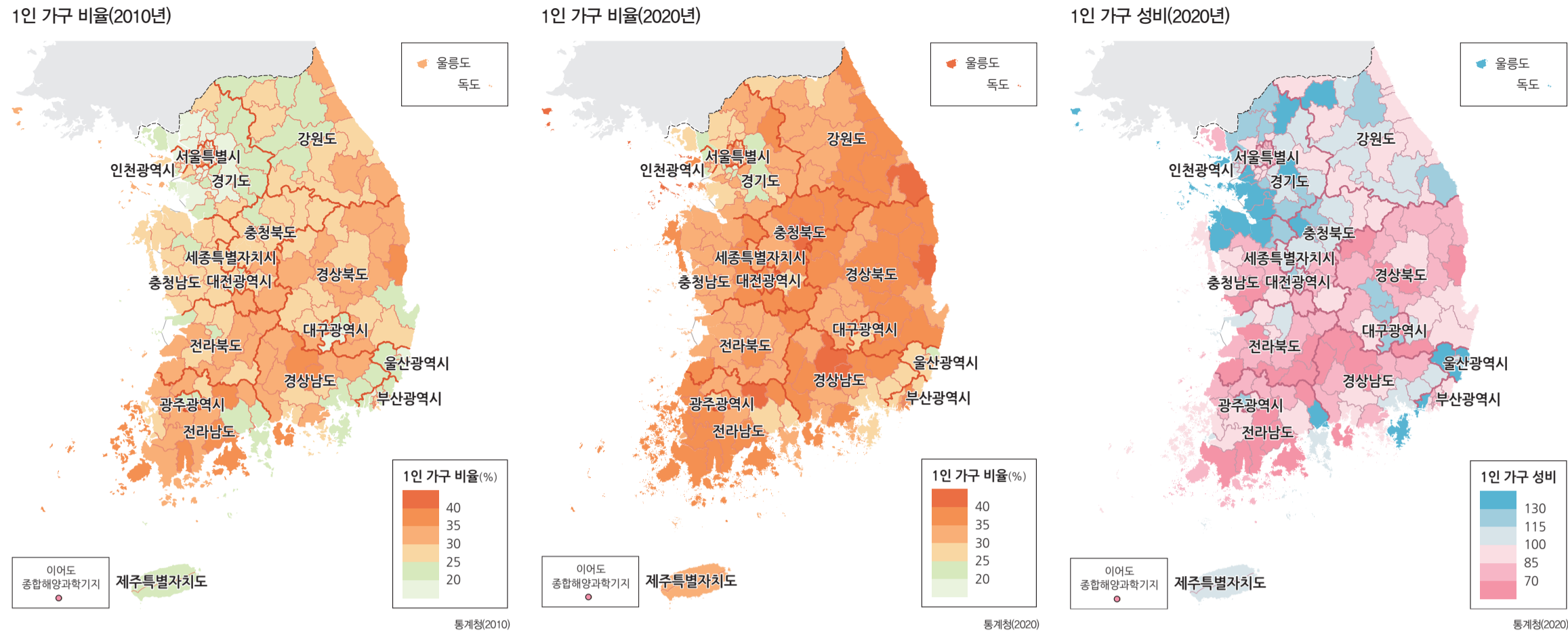
주택의 연면적을 살펴보면 단독 주택은 연면적이 130㎡를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와 연립 주택은 연면적이 60-85㎡인 비율이 높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40-60㎡인 비율이 높았다. 가구당 주거 면적은 76㎡인 아파트가 가장 넓었고, 1인당 주거 면적은 단독 주택이 36㎡로 가장 넓었으며 아파트, 연립 주택, 오피스텔 등은 27-2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가구당 평균 거주인 수는 오피스텔이 1.5로 가장 적었고, 단독 주택이 1.9로 그다음이었으며 아파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순이었다. 자가 비율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자가 비율이 43.5%로 가장 낮았고, 전남의 자가 비율은 7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군·구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시·군·구 자가 비율이 낮았다.

주거의 점유 형태(2020년)



1인 가구



*통계청의 2017년 미래 가구 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1인 가구는 2015년 27.2%로 가구 증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2040년에는 그 비율이 3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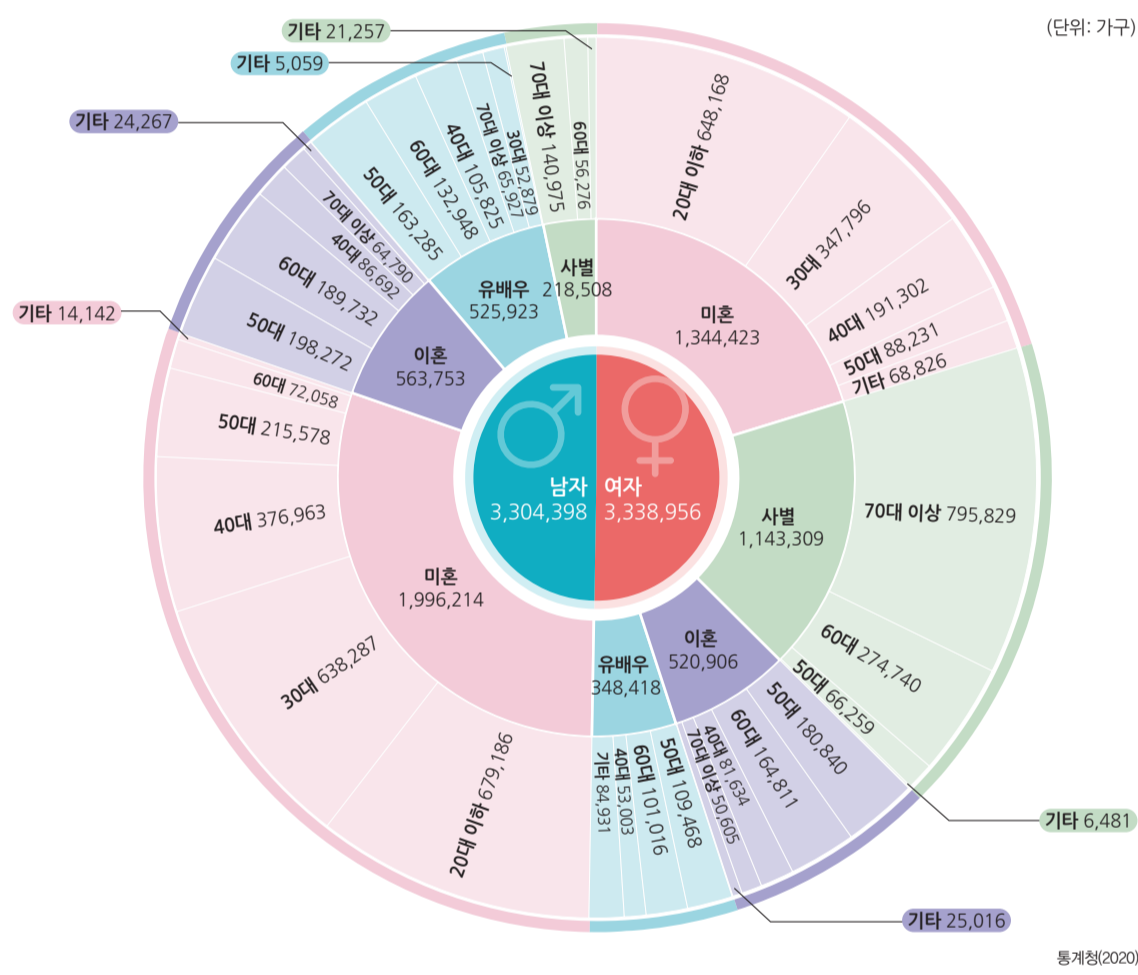
2010년과 2020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시·도별 1인 가구(2010~2020년)

	2010년			2020년			2040년 추계		
	일반 가구원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원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원	일반 가구	1인 가구
전국	46,651	17,339	4,142	49,029	20,927	6,643	22,651	8,237	36.4
읍부	3,984	1,487	347	4,761	2,022	621	-	-	-
면부	4,237	1,821	552	4,201	2,008	722	-	-	-
동부	38,430	14,031	3,244	40,066	16,897	5,300	-	-	-
서울	9,459	3,504	855	9,099	3,982	1,391	3,830	1,418	37.0
부산	3,306	1,244	291	3,214	1,405	455	1,354	503	37.2
대구	2,377	868	192	2,321	986	305	974	350	35.9
인천	2,585	919	191	2,798	1,147	325	1,315	452	34.4
광주	1,423	516	123	1,410	599	194	604	233	38.6
대전	1,441	533	135	1,425	631	229	636	257	40.3
울산	1,042	374	77	1,083	444	123	447	139	31.1
세종	-	-	-	340	139	44	236	83	35.3
경기	10,926	3,831	777	12,693	5,098	1,406	6,116	2,036	33.3
강원	1,392	558	155	1,453	661	231	736	300	40.8
충북	1,439	559	150	1,525	679	236	791	319	40.3
충남	1,902	749	202	2,017	892	305	1,082	427	39.5
전북	1,699	660	175	1,701	756	255	750	296	39.4
전남	1,668	681	197	1,686	762	257	792	309	39.0
경북	2,458	1,005	290	2,483	1,132	389	1,176	462	39.3
경남	3,019	1,151	286	3,148	1,350	418	1,460	524	35.9
제주	515	187	45	633	263	82	354	128	36.2

*통계청의 2017년 미래 가구 추계에 의한.

성별, 연령별, 혼인 상태별 1인 가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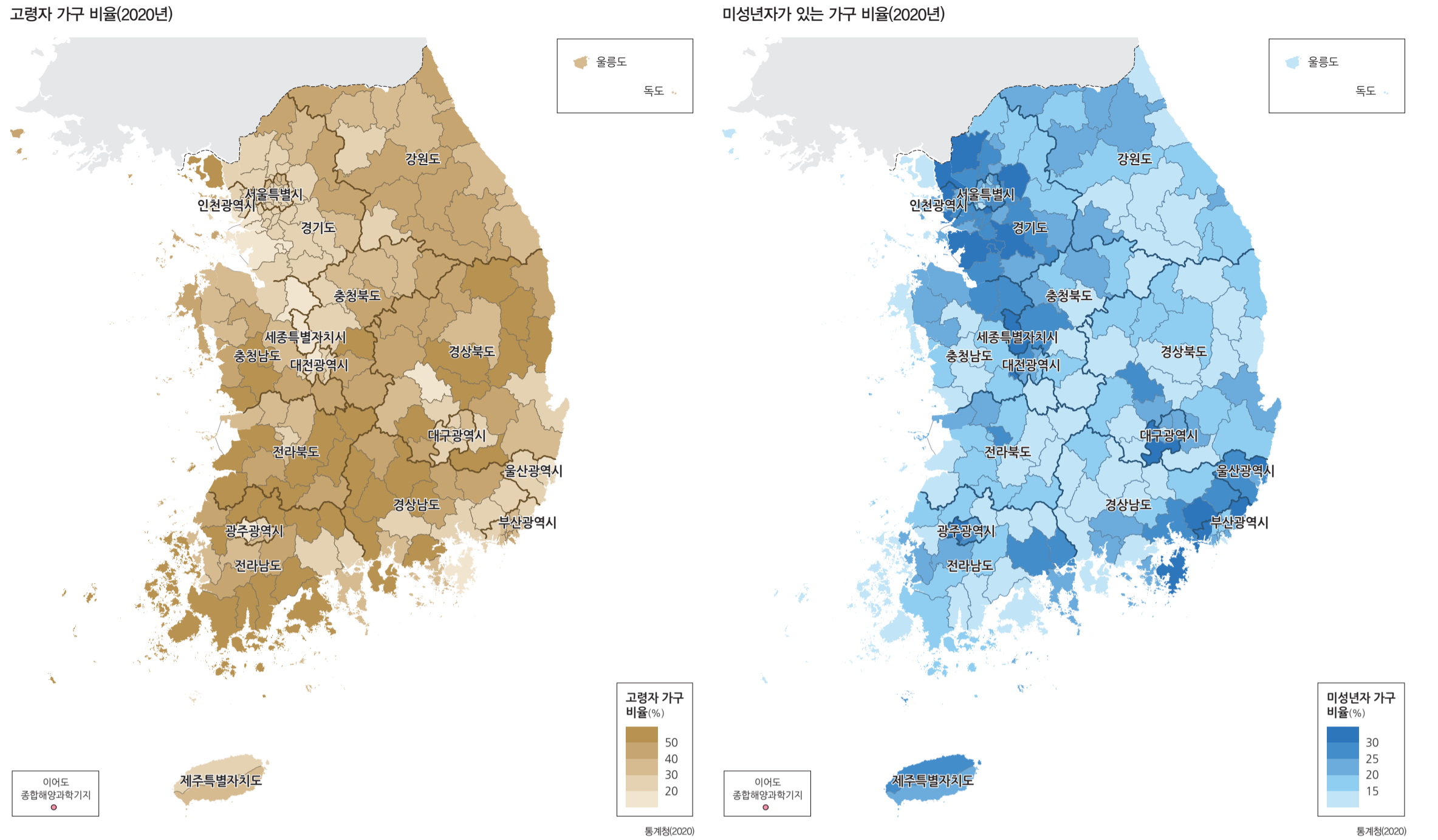


간 1인 가구는 250만 가구 증가하였고 1인 가구 비율은 23.9%에서 31.7%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원을 기준으로 13.5%에 이른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1인 가구 비율은 면부만이 30%를 넘었으나, 2020년 현재는 읍·면·동 모두 30%를 넘고 있으며 가구원 대비로도 2020년 비율은 모두 2010년의 비율을 뛰어넘고 있다. 2010년에는 가구원 대비 10%를 넘는 시·도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주로 고령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2020년 현재는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이 15%를 넘고 있다. 2020년 현재 가구 기준으로는 인천, 울산,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1인 가구 비율은 모두 30%를 넘고 있다. 2040년에는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은 1인 가구 비율이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과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등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 그리고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다. 반면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곳은 수도권의 주거용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경기 과천시, 남양주, 의왕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김포시 등과 충남 계룡시 등을 들 수 있다.

1인 가구는 성별, 연령별, 혼인 상태별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현재 1인 가구는 60대까지는 남성이 많고, 70대 이상은 여성이 많으며,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50.3%).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70대, 30대, 50대, 60대, 40대 순이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이 가장 많고 사별, 이혼, 유배우자 순이다. 30대 이하의 미혼 1인 가구는 주로 도시에서, 고령 사별 1인 가구는 농촌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성비의 차이도 크다.

고령자 가구와 미성년자 가구



가구의 변화에 있어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자 가구의 증가와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의 감소 또한 중요한 변화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2010년 407만 가구에서 2020년 587만 가구로 44% 증가하였다. 2010년 23.5%이던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20년 28.0%로 급증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남은 고령자 가구의 비율이 39%에 이른다. 또한, 고령자만 있는 가구,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율은 각각 14.2%와 7.9%에 달해 고령자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41개의 시·군·구가 고령자가 있는 가구 비율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이 고령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낮다. 하지만 이런 도시 지역 역시 고령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가구, 미성년자 가구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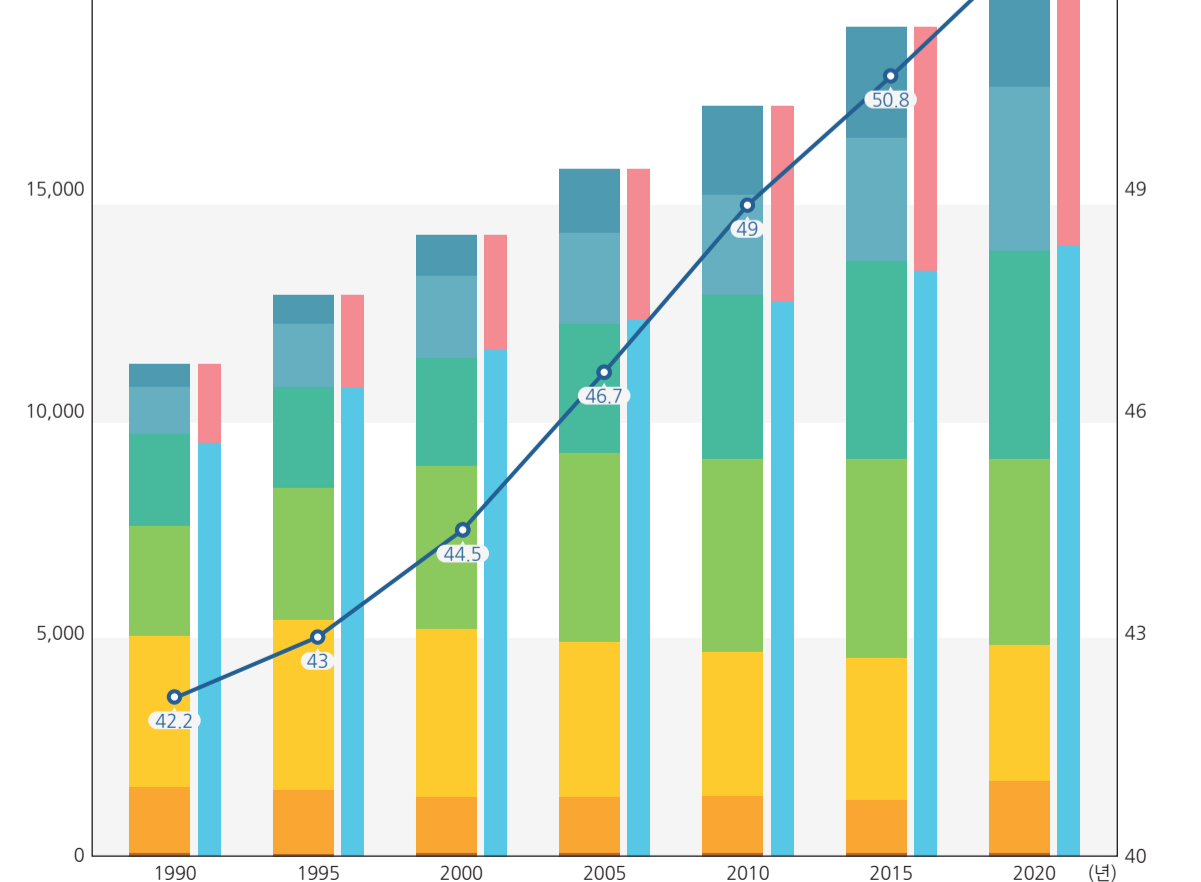
일반 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고령자만 있는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2차녀 이상 가구		3차녀 이상 가구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전국	20,927	5,866	28.0	2,965	14.2	1,661	7.9	4,949	23.6	2,951	14.1	511	2.4
서울	3,982	1,061	26.6	486	12.2	260	6.5	819	20.6	458	11.5	66	1.7
부산	1,405	455	32.4	237	16.8	136	9.7	292	20.8	170	12.1	26	1.9
대구	986	281	28.5	149	15.1	83	8.5	233	23.6	141	14.3	22	2.2
인천	1,147	289	25.2	134	11.7	76	6.7	289	25.2	171	14.9	29	2.5
광주	599	145	24.2	75	12.6	42	7.0	154	25.7	99	16.5	19	3.2
대전	631	147	23.3	75	11.9	42	6.6	147	23.3	91	14.4	17	2.7
울산	444	101	22.8	49	11.1	27	6.2	121	27.3	73	16.4	11	2.5
세종	139	24	17.1	11	7.8	6	4.1	50	36.0	31	22.3	5	3.6
경기	5,098	1,227	24.1	556	10.9	297	5.8	1,411	27.7	845	16.6	142	2.8
강원	661	223	33.8	122	18.4	70	10.6	135	20.4	79	12.0	15	2.3
충북	679	199	29.3	109	16.1	62	9.1	149	21.9	92	13.5	19	2.8
충남	892	277	31.1	153	17.1	84	9.5	204	22.9	126	14.1	25	2.8
전북	756	265	35.1	150	19.8	87	11.5	160	21.2	101	13.4	23	3.0
전남	762	297	39.0	174	22.9	105	13.8	155	20.3	95	12.5	22	2.9
경북	1,132	395	34.9	229	20.3	132	11.7	229	20.2	135	11.9	24	2.1
경남	1,350	407	30.1	223	16.5	133	9.8	331	24.5	201	14.9	35	2.6
제주	263	72	27.6	34	12.8	18	6.9	70	26.6	45	17.1	12	4.6

*미성년자(18세 이하)가 한 명 이상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자라도 자녀 수에 포함함.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는 국가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커가는 터전이다.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는 2016년 557만 가구에서 2020년 495만 가구로 11% 감소했으며, 2016년 28.7%이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2020년 23.6%로 급감하였다.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감소 폭이 더 커서 2016년 206만 가구에서 2020년 169만 가구로 18% 감소했으며,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6년 10.6%에서 2020년 8.1%로 감소하였다. 출산 장려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출생자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구와 가구원의 변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고령자가 있는 가구 비율과 대체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2020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무려 117개의 시·군·구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20% 미만으로 5가구 중 1가구 미만에서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6개 시·군·구에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10% 미만이다. 반면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는 18개 시·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가구를 대표하며 가계의 생계책임자인 가구주는 1990년에는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많았으나, 2020년 기준으로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많고 70세 이상 가구주가 30대 가구주보다도 많다. 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가구주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 15.7%에서 2020년 32.7%로 높아져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변화



*2015년 까지 가구주 중위 연령은 통계청 발표자료이고, 2020년 가구주 중위 연령은 5세별 연령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임.